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차명제(사회학박사,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우리사회가 1945년 해방된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기는 했지만 그 발전 궤적은 일직선이 아니라 갈지자 형태로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마다 시민들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와 광장으로 뛰쳐나와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왔다. 시민들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정도 수준으로나마 발전할 수 있었다. 한국과는 달리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했던 다수의 개발도상가들에서는 아직도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며 그들 국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는 문서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권력 감시, 그리고 현실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합법적인(형식적인) 면죄부로 전락하여 퇴보하고 사회는 감시와 강제, 부자유와 통제, 규율과 불신이 만연한 야만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민주제도가 완전히 발달한 사회에서 민주제도에 대한 믿음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때 국가적 행복의 근원이라고 신뢰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생각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위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며.... 국민은 전반적으로 부패의 증가에 익숙해져 있다. ... 부패가 만성화되고, 공공심이 소멸되고, 명예와 선행과 애국심의 전통이 약화되고, 법이 무시되고, 개혁의 가망이 사라지면, 고통받는 대중 속에서 화산과 같은 힘이 생겨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를 산산조각 내고 만다. 이런 와중에서 강력하고 분별없는 자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중의 맹목적 욕구 또는 대중의 광포한 열기를 이용하여 이미 활력을 상실한 민주주의는 형식을 제쳐 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칼이 펜보다 강해지고 야만적인 힘과 거친 광기가 교차하면서 문명은 혼미상태에 빠져 쇠퇴하고 만다.”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537-538쪽)

헨리 조지는 1876년 미국의 자본주의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쇠퇴하며, 파시스트가 분별력을 상실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어떻게 등장하여 집권하는지를 이미 150여 년 전에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는 20세기 초의 공산주의 혁명과 파시즘, 나치즘의 등장으로 현실화 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설득력 갖고 있다.

헨리 조지가 제시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우연이나 자연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적극적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주체인 민주시민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지극히 평범하고도 단순한 논리는 하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주체들 사이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충돌하기도 하고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의 부재로 감정적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주제들일 것이다. 헨리 조지는 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자유는 정의이고, 정의는 자연법이며, 건강과 조화와 힘과 동지애와 협동의 법이다.”

“인간에게 자유는 생명과 빛의 주인인 태양과 같고 구름을 뚫고 만물을 성장시키며 모든 움직임을 도와 차디찬 무생물에서 극도로 다양한 생명과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는 햇빛과도 같다.”(위의 책, 548쪽)

우리 인류의 삶에서 자유는 태양과 같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성장시키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이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자유를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창출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한계가 어디인지 등이 학습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청소년 학생들이며, 지역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성인들이다. 이 때 성인 대상의 민주주의 교육의 한계는 매우 명확하다. 이미 사고와 가치관이 고착화된 성인들은 사실 민주시민교육 보다는 인성이나 취미, 혹은 직업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성인들은 사실 이미 민주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보다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로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수준에서 서구의 선진국 정도의 민주주의로 도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결여에 기인한다.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② 새로운 정치 세력이나 집단에 훨씬 우호적이며 ③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에 민주주의 감수성이 매우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 능력도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일상화되어 있고 2,30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 사회적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러움과 한숨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다.

헨리 조지는 민주주의가 쇠퇴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자기 학습을 통해 쇄신되는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반면에 한국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이 결여된 사회들에서는 비록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의 함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하더라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결여되었기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파시스트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반복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실현을 희구하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참여해야만 한다. 다만 성인과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차별성이 분명해야 하며 대상별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